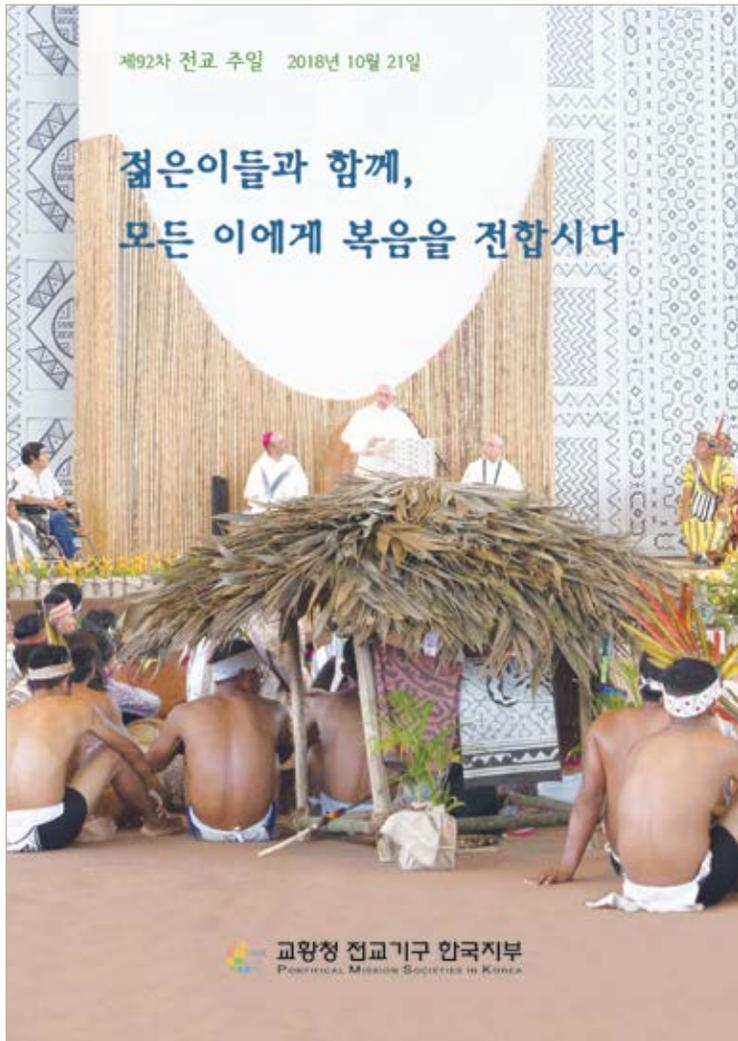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9-20)



(2018년 제92차 전교 주일 포스터)

[제1독서].....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ㄱ.3ㄷㄹ-4.5-6  
(◎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로마 10,9-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16-2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50] 만방에 나아가서
- 봉헌성가: [217] 정성 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9] 사랑의 성사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239] 거룩한 어머니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묵상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구원의 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면서 이루어집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행하는 업적이 하느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생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느님께 선택되고 파견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제자들이 전할 수 있도록 파견하십니다. 파견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파견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힘과 생각으로 전해지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총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줍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 가톨릭 뉴스

## 바오로 6세 교황과 로메로 대주교 등 7명 성인 반열에

제15차 세계 주교시노드 중 시성식 거행  
“성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오로 6세 교황과 엘살바도르의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를 시성했다. 교황은 두 성인이 성덕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의 증거자였다고 극찬했다.



교황은 10월 14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시성식 미사를 집전했다. 이날 바오로 6세 교황과 로메로 대주교 외에 성체조배수녀회 설립자 프란체스코 스피넬리 신부와 이탈리아의 빈첸초 로마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시녀회 설립자 마리아 카타리나 카스피 수녀, 스페인의 교회의 십자군 선교회 설립자 나자리아 이나시아 수녀, 이탈리아 청년 눈치오 슐프리치오가 시성됐다.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기간 중 봉헌된 시성식 미사에는 전 세계에서 6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례했다.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기쁨의 원천으로 되돌아 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시성된 성인들은 이 길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이날 시성식 미사에서 로메로 대주교의 혈혼이 남아 있는 띠를 맺으며, 바오로 6세 교황이 사용하던 팔리움과 목장, 성좌를 사용했다.

1963년 교황으로 선출된 바오로 6세 교황은 성 요한 23세 교황 선종 뒤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이끌었다. 또 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황과 주교단이 일치를 드러내고 신앙과 도덕을 발전시키며 교회의 활동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를 정례화시켰다. 교황은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예언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바오로 6세 교황은 열정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리는 증거자였다”면서 “오늘날까지도 공의회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통의 사명인 모든 이의 성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덧붙였다.

1980년 미사 집전 도중 살해된 로메로 대주교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부패에 대해 싸운 양심의 목소리였다. 또한 로메로 대주교는 엘살바도르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을 내던졌다. 교황은 “로메로 대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고 말했다.(가톨릭 신문)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18년 전교 주일 담화문(부분)

## “젊은이들과 함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사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삶의 여정을 일구어 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교 신앙이 영원히 젊음을 지켜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 삶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끌리는 것과 파견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젊은 시절에, 사랑의 내적인 힘으로 여기는 두 가지 움직임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미래를 약속하고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무를 기쁘게 실천하는 일은 크나큰 과제입니다. 저는 젊음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과 가족을 돌이켜 볼 때 저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렬한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성찰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기쁨 273항).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자유를 일깨우시어 이러한 참되고 완전한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선포하도록 복돋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 보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는 저의 체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덕분에 저는 제 꿈의 확실한 토대를 발견했고 그것을 실현할 힘을 찾았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가난이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악은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끄는 도화선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때로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자기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하는 데에 너그럽게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논리를 배웁니다 (1코린 1,17-25 참조). 이것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음 선포입니다(요한 3,16 참조).

### 땅끝까지 신앙을 전하십시오

교회 사명의 핵심인 신앙 전수는 사랑의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쁨과 열정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이끌림’ 으로 신앙이 전파되려면 사랑으로 너그러워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에(아가 8,6 참조), 사랑에 한계를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너그러움은 만남과 증언과 선포를 낳습니다. 너그러움은 신앙에서 떨어진 모든 이, 신앙에 무관심하고 어찌면 심지어 신앙에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과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날 땅끝은 매우 상대적이며 언제나 쉽게 ‘항해 가능’ 합니다. 디지털 세상, 곧 너무나 만연하고 언제나 이용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는 경계를 허물고 거리감을 없애며 차이를 줄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교류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우리 삶을 내어 주지 않는다면 결코 삶의 참된 친구는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에 동참하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소명에 헌신하여야 합니다(루카 9,23-25 참조).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신의 소명을 찾고 발견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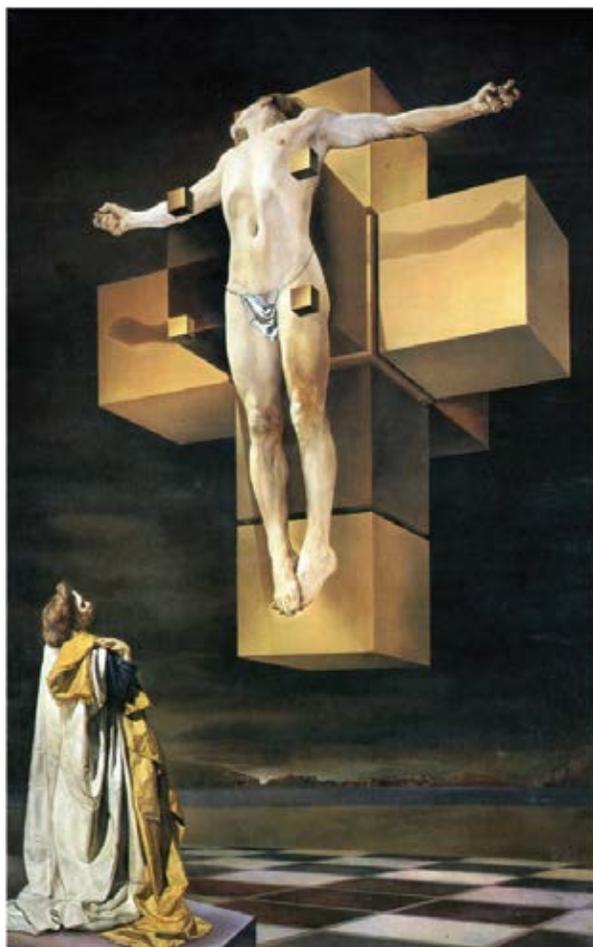
### 사랑을 증언하십시오

참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마태 25,40 참조)에게 봉사하는 길을 선교 자원봉사 활동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인간 존엄을 증진하고 사랑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교회 경험을 통해, 젊은이들 각자가 받는 교육은 직업적 성공을 위한 준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개발하고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이 칭찬할 만한 선교 봉사의 기회는 보람찬 시작이 되고, 성소 식별을 통해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 파올로 만나 복자, 저희 모두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또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소서.

## 코퍼스 초입방체 <십자가 처형>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12사도를 선택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 선언하신다. 가장 측근인 사도들의 배신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참혹한 비극 <십자가 처형 Crucifixion>으로 이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Spanish, Salvador Dalí, 1904-1989)는 현대미술의 장에 명작을 남겼다. 1954년 로마의 첫 전시회에서는 <코퍼스 초입방체 Corpus Hypercubus>로 공개되었는데, 1955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하며 <십자가 처형>으로 변경되었다. 성공한 화가, 교만한 천재는 공개적으로 신을 부정하는 악담과 교회를 공격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의 대참사를 겪은 달리는 1941년 37세에 가톨릭에 귀의하며 예술적 행로의 궤도 또한 획기적으로 변한다. 관람객은 하느님께 완전 복종을 선언한 달리의 신비스러운 거대한 실물크기의 그리스도와 마주한다.



살바도르 달리, <십자가 처형>, 1954, 유채화, 194.3 x 123.8 cm

달리는 초기의 초현실주의 정신에서 벗어나 전통적 성서 텍스트를 독자적으로 해석해 명장면을 창조했다. 그는 가톨릭 신앙과 고전주의 정신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당시 매료되었던 원자핵의 신비를 화면에 융합한다. 그리스도가 매달린 거대한 십자가는 8개의 정육면체 하이퍼 큐브를 이용한 4차원의 공간이다. 달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하학적 다차원적 4차원의 불가사의한 공간에 인간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공중 부양하는 그리스도와 바닥의 체스 판, 그 뒤로 보이는 거대한 폐허처럼 보이는 풍경의 비현실적인 조합은 초현실주의 요소를 결합시킨 기법이다. 왼쪽 구석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인물은 가롯 유다로 집약된다. 뒷모습에 걸쳐진 노란 가운데는 다음 해 제작된 12사도들과의 최후의 성찬식에서 유다의 옷과 일치한다. 관람객은 배반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유다임을 확신한다.

스페인의 성체절이자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코퍼스(Corpus)는

그림의 원제목으로, 달리는 가톨릭의 신비를 추구하며 초현실주의 화가에서 제명당한다. 종교와 연결시킨 수학과 과학이 계산된 사실주의적 기법의 환상적인 화면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십자가 처형을 위한 가시 면류관도 오상도 고문의 흔적도 없이 그리스도의 신체는 건강해 보인다. 그는 그리스도의 형이상학적 아름다움을 하느님을 위해 남겨 두었다. 공중 부양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상에서의 욕망과 고통을 넘어선 초월적 세계로의 비상이다. 바닥의 영속적인 무한대의 사각판은 십자가 아래의 먼 수평선을 지나, 그의 고향인 까탈루냐의 보르트 지갯 해안으로 이른다. 원자핵의 환영을 표방한 달리의 화면은 지상의 인간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넘어서 영원한 천상의 공간인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소본능을 전달한다. 관람객은 십자가에 매달린 당당한 그리스도 아래 무기력하고 초라한 인간의 실체가 투영된 마지막 모습을 본다.

달리는 과거 르네상스를 전후한 올드 마스터의 예술에 불후의 걸작으로 아름답게 대응한다. 적막한 공간에 상흔 없는 무결한 신체의 보이지 않는 얼굴의 십자가 처형은 처연하다. 관람객은 절대자의 가려진 얼굴로 진정한 정체성을 강조한 신비로움에 더욱 매료된다. 마지막으로 독대하는, 그리스도에게 외면당하는 죄에 짓눌린 유다의 뒷모습에 반추된 나약한 인간을 위로한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 받은 사도들은 유혹과 시험에 든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처절한 반성과 회개로 하느님께 순명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초대교황이 된다. 배반자 유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자책하여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의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인류 배신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느님을 전파하고 소명을 다하며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 바티칸 최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 봉헌

文 대통령, “오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올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는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7일(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는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됐다. 파롤린 추기경은 서울대교구 장이태신부가 대독한 미사 강론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우리는 겸손되이 역사와 인류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느님께 온 세상을 위한 평화의 선물을 간청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의 긴장과 분열을 겪은 한반도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충만히 울려 퍼지도록 기도로 간구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만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다는 점에서 이번 미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해 성탄대축일 메시지, 올해 초 교황청 주재 각국 외교사절들과 만난 자리, 그리고 올해 부활대축일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 교황청 국무원장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메시지 등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 역시 한반도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별한 배려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미사 후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늘의 기도가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갈망하며 형제애를 회복하고 있는 남과 북, 우리 겨레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교황성하와 교황청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이 미사에는 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 교황청 외교단, 그리고 현지 교민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또 지난 3일 개막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주교시노드에 참석하고 있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교회의 대표인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장인 서울대교구 정순택 주교도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www.cpbcc.co.kr>

### 요한회, 에미츠버그 성지순례



50대 신자들의 모임인 요한회가 지난 14일(일) 메릴랜드 에미츠버그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에미츠버그 성지를 방문한 13명의 요한회 회원들은 십자가의 길과 미사 봉헌을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성지 인근의 캐톨릭 주립공원

에 들러 준비해 간 음식을 함께 나누며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요한회는 오는 11월 25일(일) 오전 11시 30분 교육관에서 가질 정기총회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2019년도 신입 회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 주일학교 2018-2019 학부모 회의

주일학교 2018-2019년도 전체 학부모 회의가 지난 1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주일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주는 곳”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일학교 교장 방명준 신부는 학부모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답변해 주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새학기 임원진과 학년별 대표 학부모들의 소개 및 인사, 지난 학기 PTO 활동 보고와 올해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Thanksgiving Potluck Dinner 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협조, 도네이션을 부탁했다.



MESSAGE OF HIS HOLINESS FRANCIS  
FOR WORLD MISSION DAY 2018

Together with young people, let us bring the Gospel to all

Dear young people, I would like to reflect with you on the mission that we have received from Christ. In speaking to you, I also address all Christians who live out in the Church the adventure of their life as children of God. What leads me to speak to everyone through this conversation with you is the certainty that the Christian faith remains ever young when it is open to the mission that Christ entrusts to us.

**Life is a mission**

Every man and woman is a mission; that is the reason for our life on this earth. To be attracted and to be sent are two movements that our hearts, especially when we are young, feel as interior forces of love; they hold out promise for our future and they give direction to our lives. More than anyone else, young people feel the power of life breaking in upon us and attracting us. To live out joyfully our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is a great challenge. I am well aware of lights and shadows of youth; when I think back to my youth and my family, I remember the strength of my hope for a better future. The fact that we are not in this world by our own choice makes us sense that there is an initiative that precedes us and makes us exist. Each one of us is called to reflect on this fact: "I am a mission on this Earth; that is the reason why I am here in this world" (Evangelii Gaudium, 273).

**We proclaim Jesus Christ**

The Church, by proclaiming what she freely received (cf. Mt 10:8; Acts 3:6), can share with you young people the way and truth which

give meaning to our life on this earth. Jesus Christ, who died and rose for us, appeals to our freedom and challenges us to seek, discover and proclaim this message of truth and fulfilment. Dear young people, do not be afraid of Christ and his Church! For there we find the treasure that fills life with joy. ....

**Bearing witness to love**

I am grateful to all those ecclesial groups that make it possible for you to have a personal encounter with Christ living in his Church: parishes, associations, movements, religious communities, and the varied expressions of missionary service. How many young people find in missionary volunteer work a way of serving the "least" of our brothers and sisters (cf. Mt 25:40), promoting human dignity and witnessing to the joy of love and of being Christians! These ecclesial experiences educate and train young people not only for professional success, but also for developing and fostering their God-given gifts in order better to serve others. These praiseworthy forms of temporary missionary service are a fruitful beginning and, through vocational discernment, they can help you to decide to make a complete gift of yourselves as missionaries. ....

"Never think that you have nothing to offer, or that nobody needs you. Many people need you. Think about it! Each of you, think in your heart: many people need me" (Meeting with Young People, Maipu Shrine, 17 January 2018).

**WORD SEARCH**

Try to find in the puzzle the words written in CAPITALS in today's first reading. ←↑→↓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in INFIRMITY.

If he gives his LIFE as an OFFERING for sin, he shall see his DESCENDANTS in a long life, and the will of the LORD shall be accomplished through him.

Because of his AFFLICTION he shall see the LIGHT in FULLNESS of days; through his SUFFERING, my SERVANT shall JUSTIFY many, and their GUILT he shall bear. (IS 53:10-11)

..... WORD LIST .....

- |             |           |          |           |
|-------------|-----------|----------|-----------|
| AFFLICTION  | GUILT     | LIGHT    | SERVANT   |
| CRUSH       | INFIRMITY | LORD     | SUFFERING |
| DESCENDANTS | JUSTIFY   | OFFERING |           |
| FULLNESS    | LIFE      | PLEASED  |           |

N N L O Y H S U R C P I B  
S U O F I O I U L O R Z K  
T I R E F I L R I J X I R  
N E D J S S E N L L U F D  
A G R M S P L E A S E D S  
D V Y A U L I G H T U V C  
N N O A F F L I C T I O N  
E F F P F M S V N E N S I  
C G F U E J E N S P F V Q  
S R E X R U R F F F I T F  
E F R U I S V L K H R L Y  
D D I K N T A F B U M I N  
K S N P G I N P N E I U S  
J K G W V F T V H J T G C  
S X S Q L Y Q W I J Y V U

- 1 유아세례**  
• 일시: 10월 21일(일) 오후 3시(성당)
- 2 하상회 모임**  
• 일시: 10월 21일(일) 오전 11:30(B-3,4)
- 3 안나회 모임**  
• 일시: 10월 21일(일) 오전 11:30(A-1,2,3,4)
-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0월 21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 5 베드로회 모임**  
• 일시: 10월 21일(일) 오후 1시(A-1)
- 6 바오로회 정기 모임**  
• 일시: 10월 21일(일) 오후 1시, 친교실(점심 제공)
- 7 2018년 학생 견진성사**  
• 예행연습: 10월 21일(일) 오후 1시 - 2:30(성당, 대부분과 함께)  
• 견진미사: 10월 23일(화) 오후 7시(성당)  
• 평일미사(오후 7:30)는 없습니다.  
• 문의: 윤정보일 교감(703)371-3589
- 8 울뜨레아 10월 회합**  
• 일시: 10월 26일(금) 오후 8시, 친교실(A-1,2,3)  
• 모든 꾸르실리스따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9 공동체 창설 32주년 기념 음악회**  
• 일시: 10월 27일(토) 오후 8:30(성당)  
• 특전미사는 오후 7시입니다.  
• 문의: 김용희 라파엘 (703)585-8380
- 10 공동체 창설 32주년 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10월 28일(일) 오후 1시(친교실)  
• 대상: 구역별 / 개인  
• 성경 퀴즈 문제집은 친교실과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문의: 서경원 마르티노 (571)236-7071
- 11 제5기 성 요셉 아버지 학교**  
• 아버지 학교에 형제님들을 초대합니다.  
• 주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 대상: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나이 관계 없음)  
• 일정: 11월 3일 - 11월 4일(1박 2일)  
• 장소: Trinitarians Retreat Center, Baltimore, MD 21208  
• 참가 신청: 친교실(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최 마르티노 (703)470-6337  
김 라파엘 (703)585-8380

- 12 복사단 모임**  
• 일시: 10월 28일(일) 오후 1시(B-1,2)
- 13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11월 1일(목)은 '모든 성인의 날' 의무 대축일입니다.  
•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미사: 11월 1일(목) 오후 8시 / 평일미사(오전 6시)는 없습니다.
- 14 위령의 날 알링턴 교구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2일(금) 오전 11시, 주교님 집전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9900 Braddock Road, Fairfax)
- 15 본당 신자들이 드리는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1월 3일(토) 오전 11시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9900 Braddock Road, Fairfax)  
•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6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33일 봉헌 기도**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10월 21일 - 11월 4일  
• 기도: 11월 5일 - 12월 7일(33일간)  
• 봉헌식: 12월 8일(성당)  
• 문의: 김 그라시아 (571)243-5054
- 17 성물부 정기세일 안내**  
• 10월 목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세일을 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 18 의료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주일 오전 8시미사 의료 봉사를 해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 과달루페 성지순례**  
• 순례 일시: 2019년 2월 8일(금) - 2월 12일(화) 4박 5일  
• 순례 비용: \$1,390/ 선착순 30명  
• 문의: 안은영 수산나 (571)423-8757

**우드브릿지 마지막 미사 / 10월 21일**

이번 주일(10월 21일) 미사를 마지막으로  
우드브릿지 미사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0월 21일(일)	연중 제29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꾸리아(오전 11:40, 하상관 #4,5), 베드로회(오후 1시), 성 요셉 아버지학교 봉사자 교육(오후 12시, 하상관),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학생 견진성사 예행연습(성당, 오후 1시-2:30), 바오로회 정기모임(오후 1시)
22일(월)	연중 제2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23일(화)	연중 제29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학생 견진성사(오후 7시,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8시),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4일(수)	연중 제29주간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성서 통독반(오후 7:30, 도서관)
25일(목)	연중 제29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26일(금)	연중 제29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울뜨레아(오후 8시, A-1,2,3),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CLC(오후 8시)
27일(토)	연중 제29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본당 음악회(오후 8:30), 특전미사(오후 7시)
10월 28일(일)	연중 제30주일	8시 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성경 퀴즈대회(오후 1시, 친교실)

**World Mission Sunday**  
**2차 헌금(10월 20, 21일)**

전교주일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위해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9주간: 토빗 1-7, 사도 19-20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25일(목) 오후 5:00-6:00**

**10월 26일(금) 오후 8:00-9:00**

**10월 2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특강: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5) 용서받은 여인들.  
-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유원진 비단네 신부.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선교: 수도자의 사명**

봉헌된 남녀 수도자들이 힘을 내어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10월 14일(연중 제28주일)

주일헌금	\$ 7,829.00
교무금	\$ 9,02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2,300.00
특별헌금	\$ 0.00
2차헌금	\$ 0.00
<b>합계</b>	<b>\$ 19,149.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지(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기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틀슨(첼마), 박명수(마리아), 김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승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버나), 장미래(아네스)

♥ **근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모),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원(필립), 최홍철(앤드루), 심용전(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셀(마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효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아병일(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b>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웨딩사진 전문</b> Soowonlee.com 703-678-9215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레드핀 소독</b>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카엘) 703-881-1155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페어팩스 부동산</b>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김응권 척추신경</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b>첼로 레슨</b>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생인취미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b>예비 펫 그루밍</b>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